

이기형 감독 3 경기 만에 승전고... 무승 고리 끊은 연변팀

—연변룡정팀, 석가장팀에 1 대 0 원정승



이보가 이날 경기의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리에 기여했다

연변룡정팀 (이하 '연변팀')은 9월 1일 저녁 7시 30분에 석가장시 유동국제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4 시즌 제 21 라운드 경기에서 1 대 0 원정승을 거두면서 소중한 3점을 챙겼다.

이날 석가장공부팀 (이하 '석가장팀')은 31번 리관희를 문지기로, 14번 마충충, 19번 류한, 20번 류락, 39번 서준치로 수비라인을, 15번 서월, 5번 송지위, 10번 안기배, 32번 남운제로 중앙선을, 38번 에리커스와 28번 메시로 공격진을 구성한 4-4-2 전형을 들고 나왔고 약속이나 한 듯 연변팀도 19번 동가람을 문지기로, 5번 리달, 15번 서계조, 3번 왕봉, 2번 현지건으로 수비라인을, 6번 리강, 24번 리호걸, 20번 김대연, 14번 리룡으로 중앙선을, 9번 로난과 10번 이보를 공격진으로 한 4-4-2 전형으로 맞섰다.

이번 경기는 9라운드 무승의 늪에 갇혀 있던 연변팀이 그동안 감독을 2차 교체하였지만 1승에 목이 말랐던 상황에서 진행된 원정경기로서 매우 관건적인 경기였다.

밀고 당기기로 시작된 경기에서 연변팀이 5분 만에 첫 코너킥을 얻었고 석가장은 메시와 에리커스 조합으로 연변팀 수비선을 탐색했다. 8분경 연변팀의 현지건이 두번째 코너킥을 얻어내고 13분경 로난이 절호의 기회를 놓쳤으며 현지건의 먼거리 슛이 골문 밖으로 날아가는 등 아쉬운 장면이 있었지만 경기의 주도권은 여전히 쌍방의 발밑에 있었다.

경기 20분이 되도록 두 팀은 별로 위험한 공격이나 슛을 조직하지 못하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했다. 23분경에 석가장팀이 첫 코너킥을 얻었지만 연변팀 수비선이 견어냈고 잇달아 이보가 반칙당하면서 첫 옐로카드가 석가장팀 선수에게 안겨졌다.

경기 25분경 연변팀은 23번 왕성페로 24번 리호걸을 교체 출전시키면서 첫 변화를 시도했다. 좌측 변에서 공격을 이끈 현지건의 활약이 비교적 눈부셨고 연변팀의 '중앙발동기' 이보는 상대의 중점 보호 대상으로 되어 수차례 침범을 당했다.

진지전을 위주로 한 전반전 경기는 치열한 장면보다 느슨한 분위기가 더

질었다. 42분경 먼거리 패스를 이어 받은 로난의 헤딩슛이 비교적 위협적이었지만 아쉽게 골문 밖으로 흘러나갔다. 경기장 잔디 상황이 리상적이 되지 못하여 선수들의 발휘에 영향을 주었지만 승리에 대한 의욕은 연변팀이 더 강했고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쳤다. 경기 추가 시간이 3분 주어진 가운데 느릿한 절주 속에서 진행된 전반전은 0 대 0으로 쌍방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공 점유율, 슛, 코너킥 등 각종 수치를 보면 연변팀이 우세를 차지하였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석가장팀에서 8번 왕승으로 에리커스를 교체 출전시켰다. 48분경 연변팀의 10번 이보가 한차례 상대 수비선의 패스 실수를 리



수비가 단단해진 연변팀, 끝까지 승리 사수.

용하여 공을 쟁탈하고 상대 문지기와 1 대 1 기회를 만들었다. 침착한 밀어 슛으로 첫 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1 대 0으로 연변팀이 원정에서 앞서 가며 경기 주도권을 잡았다. 순식간에 경기장 분위기는 팽팽해졌고 연변팀은 밀집 방어와 패스 반격으로 석가장팀을 괴롭혔다. 경기 53분경, 석가장팀의 서준치가 연변팀의 리룡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옐로카드를 받았고 이어진 로난의 슛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경기 60분경 연변팀의 리달이 전술 반칙으로 메시를 밀치면서 옐로카드를 받았다.

연변팀은 기회만 있으면 패스 반격으로 석가장팀의 문전을 파고들었는데 55분, 57분, 59분 등 파상공격으로 석가장팀의 밀물공세를 역제시켰다. 거기에 다같이 움직이고 주동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등 연변 전통의 축구 풍격이 살아나면서 경기 흐름은 연변팀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다.

석가장팀은 65분경, 부상당한 마충충을 내리고 반규를 올렸고 67분경에는 서준치를 내리고 17번 아부리куру를 올리면서 추격의 고삐를 단단히 하였다.

연변팀은 76분경, 29번 류박으로 체력 소모가 많은 2번 현지건을 교체 출전시켰고 석가장팀은 29번 부상으로 15번 서월을 교체 출전시켰다. 80분까지 경기 주도권은 여전히 연변팀이 장악하였고 수비선은 온당한 발휘로 석가장팀의 공격을 막아냈다.

공 점유율에서도 56:44로 연변팀이 앞섰다. 84분경 석가장팀이 비교적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고 33번 류환이 주도한 공은 연변팀의 방어벽에 막혀 경기장 밖으로 흘러나갔다. 런이어 이어진 코너킥도 동가람의 주먹에 맞춰 안전지대로 날아갔다.

86분경, 연변팀의 5번 선수 리달이 공쟁탈 과정에 작은 부상으로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 89분경, 석가장팀의 메시가 강슛을 날렸지만 또 골문 우를 날아지났다.

후반전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진 가운데 연변팀은 금방 올린 류박을 13번 림대준으로 교체하며 완강하게 석가장팀의 공격을 막아냈다. 연변팀은 1 대 0을 끝까지 지켜내고 9라운드 무승의 늪에서 헤어나오면서 귀중한 3점을 챙겼다.

원정에서 승리한 연변팀은 오는 9월 8일 19:00에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는 슈퍼리그 승격 강력한 후보인 대련영박과 제 22 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된다.

/ 김태대 김파 기자



[특독 관전평]

이기형 감독 첫 승 신고식... 승리 가뭄 해결한 연변팀



이기형 감독이 첫 승을 신고했다. 부임 3경기 만에 승리를 쏘아 올렸다.

연변팀 역시 간만에 승전고를 올렸다. 9경기 무승 수렁에서 탈출하며 달콤한 승리의 맛을 봤다.

무승행진을 거듭하며 승리에 대한 갈증이 나날이 커지던 와중에 이날의 승리는 또 기나긴 '무더위'를 겪었던 팬들의 '갈증'도 시원하게 해소시켜줬다.

신임 감독이 사령탑을 잡은 후 차츰 변화를 보이던 연변팀은 이날 비록 원정경기였지만 움츠러들거나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지 않았다. 경기 초반에 조심스러운 탐색전을 펼치고는 홈팀인 석가장공부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전에 연변팀이 슈팅 5회(유효 슈팅 1회)를 기록했던 반면에 석가장공부팀은 슈팅 2회에 유효 슈팅은 아예 없었던 점을 미루어봐도 경기의 흐름을 조금은 읽을 수 있다. 후반전에 들어 석가장공부팀이 유효 슈팅 1회를 겨우 만들 어내긴 했지만 연변팀도 슈팅 5회에 유효 슈팅 1회를 추가했고 나아가 그 1회를 선제골로 연결하며 상대팀을 제압했다.

특히 이날 연변팀은 승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끝까지 투혼을 발휘했다. 선수들이 보여준 정신력의 승리였던 셈이다. 통상 연변팀이 선제골을 넣는 경기면 팬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선제골을 넣고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우스개소리를 하곤

한다. 그만큼 선제골을 넣고도 체력적, 집중력 부족으로 동점골을 허용하는 경기를 많이 겪었다는 자조 섞인 '아쉬움'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날 연변팀은 후반 48분에 해결사로 나선 이보의 선제골을 후반 추가 시간 6분까지 악착같이 지켜냈다. 비교적 이른 시간에 나온 득점 우세를 선수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했다. 40여분간 혼신을 다한 선수들의 투지가 돋보였다.

전반 경기를 살펴보면 중간중간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만 전반적으로 연변팀은 새 감독 체제에서 수비가 단단해지는 듯하다.

더욱 단단해지는 연변팀을 기대하게 하는 한편 이날의 원정승은 연변팀에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승리이다. 다음 경기(9월 8일)에 홈으로 돌아오는 연변팀은 리그 우승은 물론, 슈퍼리그 진출까지 점치는 강팀 대련영박과 맞붙는다. 상당히 까탈스럽고 부담스러운 강팀을 안방으로 불러들이기 전에 연변팀은 원정에서 '승리 가뭄' 해결을 했으니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기형 감독 역시 3경기째 '지치 않는 축구'를 보여주며 부진에 빠졌던 연변팀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느낌이다. 강팀에 강한 연변팀이 이기형 감독이 임하는 팀 색깔에 맞춰 어떤 홈장전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눈길이 쏠린다.

/ 김가혜기자

'죽음의 조' 어디?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 결과

조	팀	순위	득점	실점	승점
A	맨체스터 시티	1	12	4	10
A	바르셀로나	2	10	6	10
A	유벤투스	3	8	8	10
A	리버풀	4	7	9	10
B	레알 마드리드	1	11	5	10
B	유벤투스	2	9	7	10
B	바르셀로나	3	8	8	10
B	맨체스터 시티	4	7	9	10
C	유벤투스	1	10	6	10
C	바르셀로나	2	9	7	10
C	맨체스터 시티	3	8	8	10
C	리버풀	4	7	9	10
D	리버풀	1	11	5	10
D	유벤투스	2	9	7	10
D	바르셀로나	3	8	8	10
D	맨체스터 시티	4	7	9	10

/ 유럽축구연맹 공식 사이트

'꿈의 무대'로 불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이하 'UCL')에서 강대강 맞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2025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식이 현지시간으로 8월 29일에 모나코에서 진행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가운데 여러 팀들이 리그 단계부터 강대강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다.

올 시즌 UCL은 변화폭이 크다. 참가 팀이 기존 32개에서 36개로 늘었다.

대회 운영 방식도 달라졌다. 기존의 '4팀씩 8개 조'의 조별 리그 방식 대신 36개 팀이 '클럽 랭킹'에 따라 9팀씩 1번 포트부터 4번 포트까

지 나누고 무작위 추첨으로 각 포트에 속한 두 팀과 한 번씩 대결하게 하는 방식이다. 팀당 총 8경기를 치르는데 홈에서 4경기를, 원정에서 4경기를 치른다.

이 성적을 통해 1위-8위는 16강에 직행하고 9위-24위는 추가 경기를 치러 남은 8팀을 가린다. 9위-16위, 17위-24위로 나뉘 대진 추첨으로 상대를 정하고 홈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추첨 결과, 지난 시즌 UCL 우승 팀과 준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가 다시 만난다. 파리 생제르맹은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스널 등 강호들과 대결한다.

/ 신화넷

중국 갑급리그, 9월부터 중요한 경기에 비디오판독 도입한다

중국 갑급리그 제 21 라운드 경기가 8월 31일 저녁에 시작됨에 따라 중국 축구협회는 예정대로 당일 해당 라운드 전체 9경기의 심판원 선정 배치 결과를 발표했다. 소식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는 9월부터 올 시즌 중국 갑급리그 남은 각 라운드 일부 중요한 경기에 비디오판독(VAR) 기술을 가동해 당시 심판위원들의 공정한 집법을 협조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 첫 번째로 이 기술을 활용한 경기는 9월 1일 저녁 료녕철인 홈장에서 펼쳐진 대련영박과의 경기였다. 이는 또 우승 쟁탈전이자 슈퍼리그 승격 명맥 경쟁이 걸린 관전 경기이기도 해 이목이 쏠렸다.

2024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국내 각급 프로리그, 축구협회컵 경쟁이 본격적으로 치열해졌다. 바로 축구협회컵 승자전 경기, 중국 갑급리그 경쟁이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중국축구협회는 경기 판정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구협회컵 남은 각 라운드 경기(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중국 갑급리그 마지막 10라

운드 부분적 경기에 VAR 기술을 도입하여 심판의 공정한 집법을 돕기로 결정했다.

8월 31일에 중국축구협회는 소식을 발부해 9월 1일 저녁에 료녕철인 홈장에서 열리는 대련영박과의 중국 갑급리그 제 21 라운드 초점 경기에

VAR 기술이 가동된다고 전했다. 이 경기는 이번 라운드 갑급리그 경기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을 적용한 경기이다. 이번 라운드에 앞서 대련영박팀은 43점으로 중국 갑급리그 순위에서 잠시 2위를 차지했는데 선두 운남옥곤과는 불과 4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추월의 주도권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우승도 바라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축구협회는 이번 경기에 VAR 기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경기외에도 9월 7일에 열리는 중국 갑급리그 제 22 라운드 운남옥곤 대 광서평과하로 홈장전도 마찬가지로 우승이 걸린 경기인 만큼 이 기술이 가동될 확률이 크다.

실제로 중국축구협회는 이에 앞서 이미 일부 갑급리그 경기에서 VAR 기술을 가동할 데 대해 해당 구락부나 경기구와 미리 소통했고 VAR 장비 설치에 대한 현지 조사까지 마쳤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점은 중국 갑급리그 남은 경기에서 매 라운드마다 VAR 기술을 적용하는 경기장수는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어떤 라운드에서는 최소 3경기에 VAR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축구협회는 경기의 중요성을 포함한 각종 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 판단한 후 각 라운드 중국 갑급리그에서 이 기술을 적용할 경기를 결정한다.

/ 북경청년보